

유리킨사이

잘라낸 금박이나 금니(아교에 개어 만든 금박 가루)으로 문양을 그려 넣는 유리킨사이는 비교적 새로운 도자기 시타에쓰케(유약을 바르기 전에 도자기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것) 기법으로, 2001년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금은 17세기경부터 도자기 장식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우와에스케(유약을 발라 구운 도자기 표면에 다시 채색하여 가마에 넣고 저온으로 구워 내는 것) 기법이 일반적이었는데, 금이 표면 가까이에 남아 시간이 지나면서 금이 벗겨지기 쉽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60년대에 들어서자, 이시카와현의 도예가 다케다 아리쓰네(1888~1976)가 시타에쓰케(유약을 바르기 전에 도자기 바탕에 그림을 그리는 것)에 금박이나 금색 안료를 사용하는 기법인 ‘유리킨사이’를 개발했습니다. 이 기법은 금박의 손상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은은한 광택이 나게 합니다.

유리킨사이는 먼저 금박에서 그림조각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시작됩니다. 금박은 찢어지거나 주름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조각을 잘라내는 작업은 고도의 섬세함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미리 고온의 유약으로 구워낸 도자기에 유약을 얇게 바르고, 잘라낸 조각을 정성스럽게 붙여 나갑니다. 그런 다음 금니나 금가루로 문양을 그리거나 바늘 같은 도구로 금박 위에 선을 그어 섬세한 디테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림이 건조된 후, 마지막으로 투명한 유약을 정성스럽게 바르고 저온에서 구워내면 금색 문양이 유약 층에 감싸인 상태로 완성됩니다.

2001년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받은 요시타 미노리(1932~)는 유리킨사이를 완성도 높게 발전시킨 이시카와현 출신의 도예가입니다.